

# 전주매일

금영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9월 12일 수요일 (음 8월 3일) 제212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추석연휴, 따뜻하고 안전하게

### 전북도,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발표

재난 대응체계 구축 시행  
가축질병 사전 차단 강화  
교통대책 상황실 운영  
의료 등에 유관기관 협조

와 우체국 소포물 등 4개 채널에 200여개 상품에 대해 전라북도 인증상품 프로모션 하는 등 다양한 판매 방식을 진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농상생과 서민 경제생활안정에 힘쓴다. 서민 생활안정 대책으로는 사업실패자 재기지원에 위한 부실채권 원금감면으로 신속한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추석명절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지원과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 임금 조기 청산과 예방활동에 노력한

다.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확대로는 사회복지시설 위로방문을 도청에서 15개 출연기관 등까지 확대하여 더불어 사는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 및 확산에 힘쓰고 저소득층 세대와 취약계층 포함 2,720세대 및 295개 시설에 생계비 지원 및 차례상 차리기, 위문방문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생산품 우선 구매 판매·홍보에 앞장서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을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귀성·귀경객을 위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특별 교통대책 상황실 운영과 도 및 시·군이 협력하여 성묘객의 교통안전과 임시버스 편의제공 대책으로 임시주차장 확보 등에 만전을 다한다. 아울러 도민과 귀성객들에게 다채로운 민속놀이 및 문화행사 추진과 도내 문화체육관광시설 무료할인·시설개

방, 박물관·미술관 등 각종 문화시설의 할인 및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 운영으로 "맛과 멋의 고향" 전라북도의 불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도민 안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분야 외에도 의료, 교통, 복지에 도, 시군,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하고 깨끗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승일 행정부지사는 "이번 추석 연휴동안 서민생활 안정, 소외계층 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 및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나눔 확대를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 확대 노력하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해 도민 모두가 더불어 나누는 따뜻한 추석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없도록 교통과 재난, 재해사고 예방 및 명절 성수식품 위생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힘써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11일 임실군이 전국 시장을 겨냥한 임실N과수가공사업장 기공식을 열었다.

## 임실표 과일, 전국시장 겨냥

N과수가공사업장 기공식... 28억원 투입 퓨레 등 제조

임실군이 고부가가치 프로젝트인 과수산업으로 전국 시장을 겨냥한다. 임실군은 11일 임실N과수가공사업장 기공식을 열었다. 이날 기공식은 임실군 관계자와 농민 등 200여명 참석했다. 과수가공사업장은 임실N과수융복합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다. 임실N과수융복합화 사업은 전북도가 공모한 '2016년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선정돼 4년 간 국비 15억원을 포함해 모두 43억원이 투입되는 중장기 프로젝트다. 과수가공사업장에는 28억원이 투입된다.

연면적 1086㎡ 규모로 올해 말 준공될 전망이다. 과수가공사업장에서는 학교 급식에 공급할 과일과 각종 제품에 사용되는 중간 소재인 과일퓨레 등을 만들게 된다. 가공된 제품들은 전국 유통망을 통해 임실N과수의 우수성을 알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민 임실군수는 "임실에서 생산된 과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제품을 만들고,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며 "소비와 유통구조를 확대해 지역경제와 과수산업 전반에 걸친 발전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무주양수발전소(남동발전) 중서부권 업무지원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최근에 채취된 자연석이 불법으로 반출되고 있다. 사진은 불법 채취된 자연석으로 쌓인 적상면 과목리 국립공원지역.

## 군 허가 없이 국립공원지역에 자연석 불법 반출

무주양수발전소 중서부권 업무지원시설 공사현장서  
모 건설사, 지정된 사토장 있음에도 무단으로 자행  
많은 양이 장기간 쌓여 있어 관계당국 단속 필요

무주양수발전소(남동발전) 중서부권 업무지원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채취된 자연석이 불법으로 반출 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중서부권 업무지원 시설공사는 폐교된 무주군 적상면 과목중학교에 신축 공사비 46억원 부지매입, 철거 및 기타 12억원,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입, 2017년 7월에 착공하여 2018년11월에 준공예정으로 (주)건설에서 시공 중에 있다.

하지만 (주)건설은 지정된 사토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에서 채취된 자연석을 무주군에 허가를 받아 반출해야함에도 절차를 무시한 채 적상면 과목리 하조부락인근 국립공원지역에 대량으로 무단반출 불법을 자행 하고 있다. 무단반출 된 자연석은 15톤 덤프트럭으로 약 4~50차 가량 많은 양을 장기간 쌓여 있어 관계당국에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이같이 장기간 공사 현장에서 불법 반출된 자연석이 국립공원지역 내 대량 방치되어있음에도 관리감독을 하는 감리는 알면서 묵인하는 건지 아니면 임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알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반해 무주양수발전소측은 "하부담 넓은 공간이 있는데 사토장으로 받아 놔다가 다시 옮겨 놓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 A모씨(59)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시공사를 맹비난 하고 철저한 조사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문 대통령 "대의 앞에 당리당락 거둬야... 국회회담 단초 기회로"

### 국무회의 모두발언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11일 "당리당락을 거둬달라"며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국회 정당 특별대표단이 동행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 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북미 대화의 교착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선 강력한 국제적인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처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락을 거두어주시기 바란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국회 회



담의 단초를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정중한 요청에 이어 이날 보수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고 한반도 정무수석의 국회를 찾았지만 성과가 없자, 직접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의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당리당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배경과 관련해 "문자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해해달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문 대통령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와 관련해선 "이제 남북 간에 필요

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야만 남북 경제 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협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전제된 뒤, "그러나 북미 간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가운데서 중재하고 촉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제게 그러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

